



2022. 10. 19 (수)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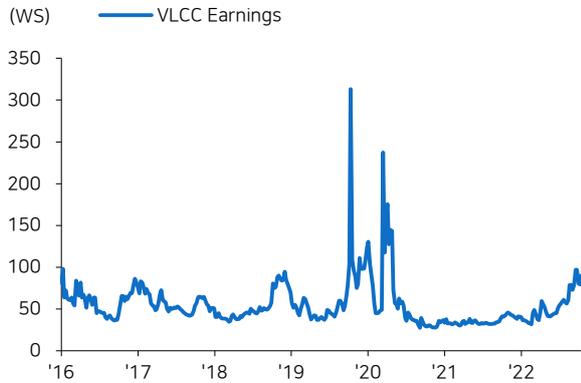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75.0p(+3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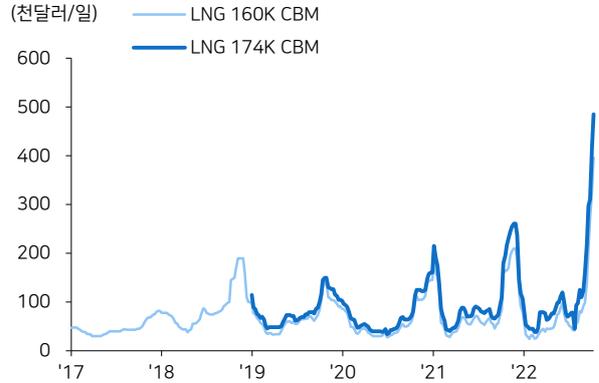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14.0p(-109.0p WoW)



VLCC Spot Rate 90.5p(+11.0p WoW)



LNG Spot 운임 396.3p(+70.0p WoW)
485.0p(+67.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3p WoW)
174.7p(-1.1p WoW)



항공시장 지표 226.2p(+3.0p DoD)
86.3p(+1.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여객 수요 늘까'...대한항공, 내달 유류할증료 인하

대한항공이 11월 유류할증료를 인하한다고 보도됨. 11월은 10월대비 3단계 하락한 14단계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적용함. 편도거리 기준 비례별로 33,000원~244,5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됨. (이코노미스트)

TotalEnergies floats tender in search for shuttle tankers

TotalEnergies가 160,000DWT급 Suezmax 셔틀탱커 4척을 건조할 조선사를 11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보도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중국 Cosco Heavy Zhoushan 등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음. 납기는 2025년 상반기이며 재래식 추진 시스템에서 향후 LNG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조건임. 한국조선사들의 셔틀 탱커 선가는 척당 1.3억달러 이상, LNG 이중연료 옵션에 600~800만달러가 추가되고, 중국은 한국보다 약 400만달러정도 낮은 선가를 제시할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

후판가 상승 우려

침수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생산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마저 파업에 돌입하며 국내 철강 수급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현재 조선 3사의 후판 재고는 11월 말부터 바닥이 날 상황이라고 언급됨. 업계에서는 하반기 후판 가격이 톤당 125만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유럽 에너지난 우려에도 스페인 앞바다엔 갈 곳 없는 LNG선 '동동'

유럽 에너지난 우려에도 스페인 앞바다와 지중해에는 35척 이상의 LNG선이 하역할 곳을 찾지 못해 배회하고 있다고 보도됨. 스페인이 급주 제공할 수 있는 LNG 하역공간은 단 6곳뿐으로 배회 중인 선박의 5분의 1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임. 스페인 Enagas는 재기화터미널 과부하로 인해 LNG하역을 거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하역 여력의 제한은 11월 첫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임. 재기화 시설과 가스관 부족으로 해상에 있는 이 LNG가 당분간 에너지로 쓰일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됨. (조선Biz)

가스값 60% 하락...유럽 한숨 돌렸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 사상 최고가 대비 60% 가량 하락했다고 보도됨.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스를 상당량 비축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영향으로 알려짐.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11월물) 가격은 127.98유로/MWh로 6월 22일 이후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 현재 유럽의 가스 비축량은 저장용량의 92%로 최근 5년 평균치를 웃돌고, 2022년 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온화해 겨울 가스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고 언급됨. (한국경제)

Tight LNG shipping market to 'progress' further into 2024

Maran Gas Maritime에 따르면, LNG선 공급 부족은 향후 2년간 지속되고, 현재 높은 용선료는 더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보도됨. 현재 타이트한 수급은 우크라이나 전쟁탓이 아니라 2017~2020년 LNG시장에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팬데믹과 2020년 미국의 175건 계약취소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언급함. (Tradewinds)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